

2019 국별 진출전략

헝가리



CONTENTS

2019 헝가리 진출전략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3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 가. (경제) 소비 및 투자가 대외 불안 완충, 경제의 질적 성장에 초점 4
 - 나. (정치) 오르반 총리 연임에 따른 정부 정책의 연속성 효과 기대 5
 - 다. (외투)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유치 계속 및 공급사슬(SC) 현지화 계속 5
 - 라.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 물류환경 개선 기대 5
 - 마. (동방정책) 높은 對EU 의존도 완화 노력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 2. 시장 분석 14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 나. 수출 15
 - 다. 투자진출 19
 - 라. 프로젝트 22
 - 마. 공공조달 23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24
 - 가. 교역 24
 - 나. 투자 25
 - 다. 주요 협력의제 27

III. 진출전략 28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8
- 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29
- 3. 한-헝가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6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42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44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5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47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하락) 2019년 헝가리 경제성장률 3.2% 전망(EU 집행위)

- 주요국의 긴축, 무역전쟁 등 세계 경제둔화에 따른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유럽중앙은행의 2018년 말 양적완화 종료,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대외경제 악화
- EU 기금 감소 및 신규 주택건설보조금(CSOK)* 종료에 따른 건설경기 하강
 - 2014~2020년 배정된 EU 기금 2017년까지 83% 기 소진하여 기금효과 하강 시기, 신규 주택건설보조금 혜택기와 비교하여 건설시장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신규 주택건설에 대한 부가세 인하(27% → 5%, 2016년) 혜택을 연장 없이 2019년에 종료
- 노동력, 인프라 등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 한계 직면에 따른 성장둔화
 - 헝가리 노동력 생산성 지수(EU 집행위)* (2013년) 73 → (2015년) 69.8 → (2017년) 68 지속 악화
 - * EU 28개국 평균(100) 기준, 2017년 독일(106.2), 오스트리아(116.9), 폴란드(75.9), 체코(80.5), 슬로바키아(80.9)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0.0	9.9	9.8	9.8	9.7	9.7	-
명목GDP	십억 달러	135.2	140.1	122.8	125.8	163.5	-	-
1인당 명목GDP	달러	13,667.4	14,206.4	12,482.9	12,823.9	16,722.0	-	-
실질성장률	%	1.5	3.6	3.1	2.0	3.6	3.5	3.2
실업률	%	10.2	7.7	6.8	5.1	4.2	3.9	-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0.0	0.1	0.4	2.9	2.8	3.3
재정수지(GDP대비)	%	-2.6	-2.1	-1.6	-1.8	-2.6	-2.4	-2.0
총수출	백만 달러	89,911	93,464	100,136	102,909	106,273	105,546	-
(對韓 수출)	"	2,337	1,638	1,124	1,054	1,206	684	-
총수입	"	82,661	86,525	91,158	91,921	86,909	95,148	-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對韓 수입)	"	516	569	813	720	706	274	-
무역수지	백만 달러	7,250	6,939	8,979	10,988	19,364	10,398	-
경상수지	"	3.8	2.0	3.2	-	4,903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23.70	232.52	279.46	281.44	253.58	278.11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71.2	2,229.7	1,086.1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116.8	4,555.8	4,079.3	-	-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원: IMF, EU 집행위, Eurostat, 헝가리 통계청, 헝가리 국립은행(MNB), WTA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경제) 소비 및 투자가 대외 불안 완충, 경제의 질적 성장에 초점
- (정치) 오르반 총리 연임(2018년 4월)에 따른 정부 정책의 연속성 효과 기대
- (외투) 대규모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 및 공급사슬(SC) 현지화 계속
-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
- (동방정책) 헝 정부의 EU 의존도 경감을 위한 아시아 국가와 협력강화 의지

가. (경제) 소비 및 투자가 대외 불안 완충, 경제의 질적 성장에 초점

□ 기업투자가 내수진작으로 선순환, 생산성 강화 등 경제의 질적 성장에 집중

-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증가는 유가 상승, 포린트 약세 등으로 대외경제 악화로 인한 효과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가파른 임금 상승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지속 증가,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헝가리의 구매력 신장

[헝가리 임금인상률·소비자물가상승률·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임금인상률	3.4	3.0	4.3	6.1	12.9
소비자물가상승률	1.7	0.0	0.1	0.4	2.9
고용률	51.2	54.1	55.9	58.0	59.3

자료원: 헝가리 통계청

- 기업의 투자는 인프라 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력 향상에도 기여. 아울러 고용주세의 단계적인 인하는 기업과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
 - * 재무부 장관은 부다페스트 경쟁력 컨퍼런스에서 생산력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
 - * 고용주세 인하 추이: (2017년 이전) 27% → (2017년) 22% → (2018년) 19.5% → (2019년 예상) 17.5%

나. (정치) 오르반 총리 연임에 따른 정부 정책의 연속성 효과 기대

□ 2018년 오르반 총리의 4선 재임에 따른 정부 정책 연속성 기대

- 2018년 총선 결과 집권여당 피데스(Fidesz)당 압승, 총 의석의 2/3 차지
-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에 따라, 친기업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장전망 밝음
 - * 현지 투자 전문가들은 오르반 정부의 정책 지속성 확보로 경제성장 향후 3.0%대 유지 기대.
 - 한편 EU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경제의 질적 성장 등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점 지적
- 난민제도 관련 헝가리 정부의 극우주의 성향에 따라 EU와 긴장감 고조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다. (외투)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유치 계속 및 공급사슬(SC) 현지화 계속

□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수출형 경제

- 헝가리 외국인 투자는 민간 축적자본이 적은 헝가리 경제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역할,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3년간 24.6% 증가
-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3대 완성차 메이커인 Daimler, Audi, Suzuki를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공급사 투자유치 가속화, 자동차·부품 분야는 투자유치 1순위
 - * 주요 프로젝트: Mercedes Benz 1.1억 달러, 아우디 1,100만 달러, BYD 2,200만 달러, Bosch 1,200만 달러 등
- R&D 센터, 기술강화 투자 인센티브 등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변화 등, 국가성장의 신동력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 * EU 기준 준수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은 국내-외국 기업 간 무차별적이나, 헝가리 투자청의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

라. (프로젝트)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 물류환경 개선 기대

□ 기존 시설 개선 및 확장을 목표로 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개시

- 헝가리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 기간을 교통 인프라 집중 개발로 지정함. 고속도로는 약 900km 정도 추가 확장될 것이며, 기존 지하철 및 철도 시설도 개보수 및 확장 공사를 2019년에 개시할 예정임
- 2014~2020년(7개년) 배정된 EU 기금 중 83%를 2017년까지 소진, 2019년부터는 잔여기금의 상당수가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

[헝가리 주요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분야	기간	규모(유로)	지역	담당기관
Budapest-Airport Railway Construction	지하철·철도	2019~2022	250백만	부다페스트	NIF Zrt. (National Infrastructure Company)
HEV-M2 Subway Connection	지하철·철도	2019~2022	400백만	부다페스트	BBK (Budapest Public Transportation Company)
M1 Subway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지하철·철도	2019~2022	100백만	부다페스트	BBK (Budapest Public Transportation Company)

자료원: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

마. (동방정책) 높은 對EU 의존도 완화 노력

□ EU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방국가와 협력 천명

- 외국인 투자의 89.0%(형 국립은행, 2016년 기준), 대외수출 79.4%, 수입 78.0% 의존(형 통계청, 2017년 기준)
 - 높은 EU 역내 FDI 및 교역 의존도 개선 노력, 2008년 유럽 경제위기 당시 서유럽의 대규모 자본 회수로 IMF 등 구제금융 경험
- 형 정부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천명하고,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싱가포르 등과 협력 강화에 주력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1년 1~2회씩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간 철도 인프라 건설 추진
 - 한국은 아시아 최대 헝가리 협력국으로 양국 간 1·2차 경제공동위 개최
-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로, 한국은 2018년 상반기 기준 헝가리 외국인 투자 1위국으로 도약
 -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을 위해 투자, 대중소 동반 진출 형태로 협력 중소기업 진출 확대 지속 전망
 - 한국이 2018년 상반기에 총 3억 510만 유로로 對헝가리 투자 1위국 차지(형 국립은행)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2018년 4월 4선에 성공한 오르반 총리와 이로 인한 정책 지속성 기대
- (경제) EU 기금 집행 축소 및 대외여건 불안으로 경제성장률 3.2%로 전년 대비 하락 예상
- (산업) 자동차·전기전자·의료·ICT·식품 등 헝가리 주산업 중심으로 성장세 계속
- (정책) 중장기 개발계획인 '세체니 2020'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가. 정치 환경

□ 2018년 헝가리 총선, 오르반 총리 연임에 따른 정책 지속성 기대

- 오르반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긍정적 경제전망
 - 오르반 정부가 유지해온 저금리(0.9%), 세금 인하(법인세 9%, 고용주세 19.5%) 등 친기업 정책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215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 수혜를 기대 중이며, EU 투자 자금의 유입, 저금리 등으로 자동차·건설 분야와 같은 주요 산업 부문에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이민 정책에 대한 오르반 정부-EU 간 이견
 - 긴장이 심화되어 성장이 하향곡선을 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 오르반의 EU 난민 및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이는 EU 집행위의 난민 정착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금 지원과 충돌, 헝가리에 대한 EU 투자자금 축소로 이어져 헝가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집권여당인 피데스당의 친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은 우리 기업에 유리
 - 오르반 정부는 서구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동방정책을 추진

[헝가리 현재 국회 의석 점유비율]

정당	2018	2016	2014	2010
헝가리사회당(MSZP)	20	29	-	59
청년민주동맹(FIDESZ)	133	114	133	263
우파연합(Jobbik)	26	24	23	47
대안정당(LMP)	8	5	5	16
기독교민주국민당(KDNP)	FIDESZ와 연합	17	-	-
무소속,기타 정당	12	10	-	1
민주야권연대(2014)	-	-	38	-
총 의석 수	199	199	199	386

주: 2010년까지 총 의석 수는 386석, 2014년부터 199석으로 축소

나. 경제 환경

□ 경제전망: 2019년 헝가리 경제성장률 3.2% 예상

- 헝가리 경제성장률, 2017년 4.0% 기록, 2018년도 3~4%대 예상, 2019년에는 EU 기금 예산집행 마감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2007~2013년 EU 기금 예산집행의 마감의 영향으로 2016년 잠시 경제성장률 2.0%를 달성한 것을 제외, 3%대 성장률 유지
- 최근 헝가리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① 소비 활성화, ② 수출 확대, ③ EU 기금 프로젝트, ④ 외국인 투자증가임

□ (소비) 소비자 물가,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 지속

- 2017년 이전에는 소비자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 2017년 2.9% 기록, 2019년에는 3.3%로 상승 예상
 - * 소비자 물가지수: (2013년) 1.7% → (2014년) 0.0% → (2015년) 0.1% → (2016년) 0.4% → (2017년) 2.9% → (2018년) 2.8% → (2019년) 3.3%
- 실질 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 사상 최대 실업률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 형 인력업체인 Hays 설문조사 결과, 2017년 응답자 79%가 임금인상
 - 해외 노동력 유출방지를 위해 형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지불 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고용주세, 법인세 감면 법안 마련

[헝가리 노동 관련 세금 조정 계획]

(단위: 포린트, %, %)

구분	2016	2017	2018	2019(예상)
최저임금(HUF)	110,000 (약 360유로)	127,500 (약 420유로)	138,000 (약 450유로)	150,000 (약 490유로)
고용주세	27	22	19.5	17.5
법인세	19	9	9	9

주: 2019년 예산안에 고용주세 2%p 감면내용이 포함, 정부는 향후 매년 단계적 감면 계획을 발표

자료원: 헝가리 투자청

□ (수출)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증가 속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유로존 경기회복으로 최근 3년간 대외수출을 11.09% 확대해오고 있으나, 주요국의 긴축과 무역전쟁 등에 따라 수출여건 악화
- 유로화 및 포린트화 약세, 사상 최저 수준금리 유지로 대외수출 환경이 개선된 측면이 있어, 대외환경이 어려워도 수출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3개월물 예금금리를 2016년 5월부터 0.9%로 계속 유지 중

□ (EU 기금) 2014~2020 EU 기금 215억 유로 배정, 차기 EU 기금 규모는 감소 예상

- 총 EU 기금 215억 유로 배정, 헝가리 정부의 추가 매칭예산은 38억 유로
 - 2014~2020 EU 기금 215억 유로(전체 EU 기금의 6.1%), 헝가리 정부의 매칭예산과 더불어 경제, 사회, 보건, 환경, 인프라 등 각종 사회문제 및 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중
- 각종 사회인프라(SOC)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U 기금 집행 및 헝가리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헝가리 건축시장은 2020년까지 상승폭이 클 것으로 기대
- 2021~2027 EU 기금은 잠정적으로 201억 유로(전체 EU 기금의 5.45%)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 기금 효과에 의존한 경제 성장폭이 좁아질 것으로 분석

□ (외국인 투자) 헝가리 경제의 중심축 외국인 투자, 증가세 계속

- 외국인 투자, 헝가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
 - 1989년 경제개방 이후, 민간에 축적된 자본이 없던 헝가리 산업 전반은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체제 재편

[최근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Q
외국인 투자	78,892	78,869	81,941	77,677	76,223	75,934	7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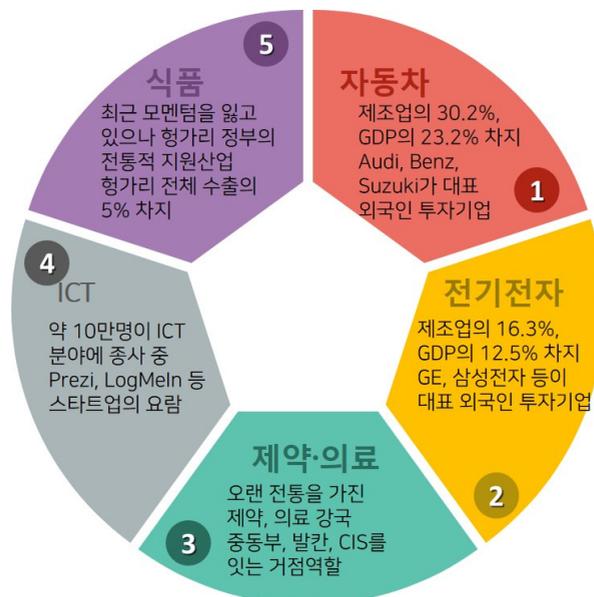
자료원: 헝가리 국립은행

- Daimler, Audi, Bosch 등 핵심산업인 자동차 분야를 중심, 외투 증가
 - 유럽 신차시장 경기호조로 완성차 브랜드 증액투자 결정
 - * Mercedes Benz 1.1억 달러, 아우디 1,100만 달러, BYD 2,200만 달러 등
 - Bosch, 삼성SDI 등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유치 성공
 - * Bosch 자동주행차량 관련 R&D 시설,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설

- R&D, SSC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경주
 - 헝가리 정부는 2017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R&D 센터, SSC(서비스 공유센터) 등 양적인 고용창출보다는 질적 수준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개편
 - Lufthansa, British Telecom, UN 기구 등 다양한 언어구사가 가능한 헝가리 인력을 활용한 SSC 센터 설립 증가

다. 산업 환경

[헝가리 주요 산업별 특징]



□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제조업 생산의 30.2%, GDP의 23.2% 비중을 차지하는 등 헝가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 중
 - 3개의 완성차 업체(Suzuki, Audi, Daimler)가 헝가리에 제조시설을 갖고 있음
 - 이는 EU 전체 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중유럽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 허브국가인 슬로바키아(90만 대 생산), 체코(120만 대 생산)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자동차부품 TOP 20 TIER 1 기업 중 15개사 등 Tier 1 기업 48개사가 헝가리에 진출
- 헝가리 자동차 분야는 산학 R&D 또한 활발하며, Bosch의 자동주행 차량트랙을 비롯한 R&D 투자, 중국 BYD 및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자동차산업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집중

□ 전기전자 분야

- 전자분야는 전체 헝가리 제조업의 16.3%(GDP의 12.5%)를 차지
 -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주요 전자제품 생산국이며 중·동부 유럽 전자제품 생산의 26%를 차지하며 약 11만 명이 전자 제조업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유럽계 전자제조전문서비스(EMS) 공급업체 중 6개의 대형업체와 다국적 전기 전자기업들의 OEM이 헝가리에 소재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의 92%를 수출
 - * GE, 삼성전자, IBM, Bosch, Jabil, Flextronics, Foxconn, Sanmina, Zollner, Videoton 등

□ 제약·의료 기술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헝가리의 제약·의료 산업은 자국 경제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 중 하나
 - * 1928년 비타민C 발견에 성공하는 등 의학·제약분야 기초과학 강국
 - 헝가리의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되었고 중·동부 유럽, 발칸 지역, 동유럽 및 아시아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생명과학 기업의 생산거점이 되고 있음
- 제약 및 의학 업체는 주로 4개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부다페스트,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치(Pécs))에 위치함
- 셀트리온 헬스케어 및 헝가리 에기스(Egis) 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럽·CIS 지역 판매 마케팅 협력으로 2015년 헝가리는 한국의 제3위 제약 수출국으로 부상함

□ ICT(정보통신기술)

- 정보기술통신 분야의 생산량은 50.1억 달러로 전체 GDP의 4.9%를 차지
 - 전기통신, IT 아웃소싱, IT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한 헝가리 ICT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으며 컴퓨터 조립 및 전기통신 장비 제조업은 중·동부 유럽의 ICT 분야를 이끌고 있음
- 하드웨어 제품 업체는 대부분 중앙 트란스다누비아 지역(코마롬(Komárom)의 NOKIA, Vác(바치)의 IBM)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주로 부다페스트에 위치하고 있음. 일부 IT 회사는 기술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헝가리의 ICT R&D는 전체 R&D 비용 중 1/4 이상을 차지함
 - 프로세스 제어 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램, 네비게이션 시스템 관련 지리정보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중추적 역할
 - 헝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바이러스 방지, 생물 정보학, IT 보안으로 유명하며 대표적 기업으로는 Ericsson, Oracle, Gameloft가 있음

□ 식품산업

- 자국 산업 중 식품산업의 생산량 점유율이 지난 10년간 감소했지만, 식품 가공 산업은 여전히 자국 경제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식품산업은 헝가리 전(全) 수출의 5%를 차지함
 -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에서 유일한 농업·식품 산업 순수출국이나 식품산업 업체 중 85% 이상이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둔 영세업체임
- 최근 경제성장에 이은 소비자 구매력에 힘입어 식품산업이 가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헝가리 인구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라. 정책·규제환경

□ 헝가리 중장기 경제정책: 세체니(Szechenyi) 2020

- 헝가리는 Europe 2020의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체니 2020'이라는 중장기 경제 정책을 마련, 2014~2020년 EU 펀드 집행 실시
 - Europe 2020: EU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고용, R&D, 교육, 기후·에너지, 빈곤퇴치 등 5개 분야에 EU 집행위가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2020년까지 목표를 부여하고 있음

[Europe 2020 목표]

(단위: %, 만 명)

구분	내용	2013	2014	2015	2016	목표 (2020)
1. 고용	20~64세 인구 중 고용률	63.0	66.7	68.9	71.5	75
2. R&D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1.4	1.4	N/A	-	1.8
3. 환경·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17.1	17.4	N/A	-	10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4. 교육	18~24세 인구 중 조기졸업 비율	9.5	9.5	N/A	-	13
	30~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					
5. 사회통합	빈곤 및 사회적 배타 위험 인구	11.9	11.4	11.6	12.4	10

자료원: Eurostat

○ 세부내용

- 총 사업기간: 2014~2020년(7년)
- 총예산: 257억 유로(자원: EU 기금 219억 유로+헝가리 정부지원 38억 유로)
 - * 프로젝트 수행비용의 50~75%를 EU 펀드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당하는 매칭펀드 형태
- 운영 프로그램(Operative Programme) 구성 및 예산

[2014~2020년 OP별 헝가리 EU펀드 배정액]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총 예산	EU 기금	헝가리 국고	EU 기금 배정비율
1. 환경·에너지	3,784	3,216	568	14.9
2. 경제개발	8,813	7,733	1,080	35.9
3. 인력개발	3,069	2,615	454	12.1
4. 교통개발	3,919	3,331	588	15.5
5. 공공행정	935	794	141	3.7
6. 지역개발	3,970	3,389	581	15.7
7. 경쟁력 개선	927	463	464	2.2
총합	25,417	21,541	3,876	100.0

주: 세체니 2020에서 농촌개발 OP와 어업개발 OP를 제외

자료원: 세체니 2020 웹사이트

2. 시장 분석

- (특성)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경제
- (수출) 독일 등 EU 회원국과의 교역 의존도 점차 심화
- (투자) 유럽인 투자 강세, 헝 정부의 동방정책은 기회요소, 최근 최저실업률은 애로사항
- (프로젝트)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 발주, 헝 세체니 2020 계획 주목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헝가리 경제 규모]

인구 (만 명)	GDP (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對한국 수입 (억 달러)	對한국 수출 (억 달러)	한국 진출기업 (개사)
968.8	1,635	16,722.0	12.06	7.06	114

자료원: 헝가리 통계청, HBI

□ 산업구조: 체제전환 이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 국가

- 중부 유럽과 발칸반도,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과 낮은 인건비로 유럽의 생산·물류 요충지 역할
- 제조업이 GDP의 26.0%(EU 평균 20.8%), 특히 자동차(제조업 전체의 30.6%), 전기전자(22%), 제약·의료, ICT 등이 중심 산업
- 외국계 기업이 제조업의 중심,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물류·R&D 수행 중
 - * (자동차) 벤츠, 아우디, 스키 등, (전자) 삼성, IBM, 지멘스 등, (의료) 머크, 파이저, GE 등
- 노동임금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공유센터(SSC) 및 R&D 센터의 헝가리 투자진출 증가 추세
 - * (SSC, Service Shared Center) IBM, 루프트한자, British American Tobacco, UNHCR, UNICEF 등
 - * (R&D센터) Bosch, Ericsson, GE, (韓) 현대 중공업 등

□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 헝가리의 2017년 대외의존도는 172.3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로, 인구가 적은 내수보다는 유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외국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음

- 헝가리의 수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 증가 또는 하락하는 구조
- 2010년 5월 출범한 오르반 정부(2018년 4월 총선 승리로 재집권)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

나. 수출

□ 헝가리의 대외 수출동향

- 대외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 (수출) 헝가리의 대외 수출은 지난 10년간 37.1% 증가했으며, 특히 2009년 유럽발 경제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업 거점 형태를 보이는 헝가리는 수출과 수입이 맞물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수입 역시 2009년 경제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기록 중
 - (무역수지) 2009년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며, 최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추세

[헝가리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8	73,380	1.3	73,700	4.3	-319
2009	59,139	-15.3	55,401	-17.1	3,738
2010	71,449	23.0	65,934	15.1	5,515
2011	79,978	17.2	72,917	6.7	7,061
2012	79,952	0.7	73,297	-0.1	6,655
2013	81,294	4.2	74,739	5.0	6,555
2014	84,506	6.9	78,232	8.8	6,274
2015	90,539	7.1	82,421	5.4	8,118
2016	93,046	2.8	83,111	1.5	9,935
2017	100,581	8.1	92,499	11.2	8,082

자료원: 헝가리 통계청(KSH, 2018년 6월 기준 최신)

- EU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
 - 유럽발 경제위기 당시 유럽 자본이탈로 구제금융을 받았던 헝가리는 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나, EU에 대한 대외수출 의존도는 증가추세로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소폭 낮아 졌음

[주요 지역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8	73,380	1.3	73,700	4.3	-319
2009	59,139	-15.3	55,401	-17.1	3,738
2010	71,449	23.0	65,934	15.1	5,515
2011	79,978	17.2	72,917	6.7	7,061
2012	79,952	0.7	73,297	-0.1	6,655
2013	81,294	4.2	74,739	5.0	6,555
2014	84,506	6.9	78,232	8.8	6,274
2015	90,539	7.1	82,421	5.4	8,118
2016	93,046	2.8	83,111	1.5	9,935
2017	100,581	8.1	92,499	11.2	8,082

자료원: 헝가리 통계청(KSH, 2018년 6월 기준 최신)

□ 헝가리 교역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 헝가리 교역 현황

- 헝가리 수입의 72.8%는 EU 국가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EU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소폭 감소한 것이 특징임
- 중국이 점유율 5.9%로 2016년에 이어 對헝가리 수출 3위국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은 각각 1.7%, 1.4%, 1.3%로 EU외 국가 중 주요 교역국으로서 자리

[헝가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요국의 점유율]

(단위: 억 달러, %)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금액	점유율	순위	금액	점유율	순위	금액	점유율	순위	금액	점유율	순위
총액	104.6	100	-	92.6	100	-	93.6	100	-	107.3	100	-
EU 역내	77.5	74.12	-	74.0	79.9	-	78.4	83.7	-	78.1	72.8	-
EU 역외	27.1	25.88	-	18.6	20.1	-	15.2	16.3	-	29.2	27.2	-
독일	26.2	25.05	1	23.7	25.6	1	24.5	26.2	1	27.2	25.4	1
중국	6.4	6.08	4	6.1	6.6	2	5.8	6.2	3	6.3	5.9	3
오스트리아	7.6	7.3	2	6.1	6.6	3	5.9	6.3	2	6.8	6.3	2
폴란드	5.4	5.16	6	5.0	5.4	4	5.1	5.4	4	5.9	5.4	4
슬로바키아	5.7	5.44	5	4.9	5.3	5	4.9	5.2	5	5.7	5.3	5
러시아	7.2	6.88	3	3.6	3.9	10	2.6	2.8	11	3.9	3.7	10
미국	1.8	1.74	14	1.7	1.8	13	1.7	1.8	14	1.9	1.7	14
한국	1.2	1.15	18	1.3	1.5	16	1.0	1.1	19	1.5	1.4	17
일본	1.2	1.13	19	1.2	1.4	17	1.4	1.5	16	1.5	1.3	1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對헝가리 주요 수출품목 동향

- 한국의 對헝가리 주요 수출품은 HS코드 기준으로 전자기기, 기계류, 제약, 차량, 플라스틱 제품으로 TV 부품, 기계류, 자동차부품, 화학소재가 주를 이룸
 - * TV 부품, 기계, 화학소재 등은 헝가리 진출기업인 삼성전자, 한국타이어가 주요 수입처
-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럽 및 CIS 지역 수출 마케팅을 위해 파트너사인 EGIS가 위치한 헝가리로 한국 제약수출이 집중됨
- 독일이 모든 제품군에서 상위 수출국이며 EU 역외국 중에서는 중국이 기계류, 과학·의료기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임

[2017년 한국의 對헝가리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경쟁동향]

(단위: 백만 달러)

상위 10위 수출 품목	한국		점유 1위		점유 2위		점유 3위	
	점유 순위	수출액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출액
1 85 (전기기기·TV·VTR)	13	469	독일	5,945	중국	3,255	네덜란드	1,794
2 84 (보일러·기계류)	14	308	독일	6,286	중국	1,437	이탈리아	1,085
3 30 (제약제품)	5	379	프랑스	728	독일	585	벨기에	541
4 87 (일반차량)	18	88	독일	4,342	체코	1,295	오스트리아	760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	54	독일	1,574	오스트리아	322	네덜란드	307
6 59 (침투, 도포한 직물)	2	34	독일	92	한국	34	폴란드	22
7 73 (철강제품)	18	30	독일	782	이탈리아	244	체코	151
8 90(광학·의료·측정· 검사·정밀기기)	7	21	중국	97	미국	85	EU 역내	70
9 40 (고무)	22	17	독일	442	폴란드	177	체코	156
10 72 (철강)	19	16	독일	512	슬로바키아	370	이탈리아	306

자료원: Wold Trade Atlas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 헝가리는 EU 소속 국가로 한-EU FTA로 관세장벽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
- EU 공통 강제인증으로 CE가 있으며 그 외의 유해물질 제한, 환경 안정성,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인증이 있음

[주요 인증제도]

CE (EU공통, 공산품)	RoHS (EU 공통, 전자제품)	REACH (EU 공통, 화학물질)	헝가리 친환경 인증 (헝가리, 자율)
			

자료원: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

- 상당수 헝가리 국민들의 경우, 자국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헝가리 내 유통을 위해서는 헝가리어 라벨링이 필수임
- 헝가리는 설탕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비만세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시장진출을 위해 이와 같은 현지에서 적용 중인 각종 특수규제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함
- * 비만세의 경우 2012년 헝가리 도입됐으며 100mm당 8g 이상 설탕 함유 시 세금 부과

수출 성공사례: 히팅케이블 F사(헝가리 수출, 실패사례는 없음)

- 난방용 정온선(Self Regulating Heating Cable) 제품으로 헝가리 시장에서 샘플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 헝가리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약 3.2km 물량의 난방용 정온선이 수출됨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韓수입증가율(2016)	對韓수입액
8516.10	난방용 정온선	71.4%	28.8만 달러(수입 점유율 9위)

- 제품의 비교우위: 헝가리 난방용 정온선 시장은 일종의 레드오션이나 저가 저품질 중국산 제품보다 내구성이 높은 고품질 제품에 대한 헝가리 시장 선호도에 따라 시장 진출이 가능했으며, 헝가리 샘플 판매 결과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품질 대비 약 20%의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22개월 / 2013.3(지사화 가입, 첫 접촉) ~ 2015(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온라인서치)
바이어 D/B	HBI, Kompass, Google 등
유망전시회	Construma / 헝가리 최대 건축전시회 (2018. 4. 11-15 / 개최주기 1년)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내구성) 헝가리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지만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내구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샘플테스트) F사의 경우 시장 테스트를 통해 가격 대비 매우 높은 품질이 검증됐고, 이에 따라 성약까지 연결됨 (현지 전시회 활용) 헝가리 건축협회에 따르면 현지 건축자재 시장이 2020년까지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유망한 현지 디스트리뷰터 발굴 및 제품인지도 강화를 위해 현지 전시회 참가를 권고

유의사례: 무역사기

- 최근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무역사기 건이 월 1~2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무역관에서는 현지 경찰의 협조를 구해 계좌동결 및 수사요청 등을 진행 중임
- 무역사기 유형
 - ① (선수금 요구)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한 공급, 시중가보다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공급을 약속하고 약 30% 상당의 선수금을 미리 요구하는 유형임
 - 실제로 존재하는 헝가리 기업명을 사용하거나 버젓이 가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기수법이 매우 치밀함
 - ② (이메일 해킹) 바이어와 공급자 간 이메일을 해킹하여 기존 거래처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갑작스럽게 변경함. 이러한 경우 계좌주명이 달라도 입금이 진행되는 현지 상거래 특성을 악용하기도 함
- 권고사항
 - 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이용(무료): 무역관 직원이 현지 기업 DB 검증 및 직접 연락을 취해 사기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인보이스가 발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역사기에 대한 검증 가능
 - 거래처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 거래처에서 갑작스럽게 입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담당자와 우선통화를 하거나 공문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발송을 요청하는 등 반드시 검증 진행
 - 골든타임: 무역사기로 입금된 금액이 현지 계좌로 이체되는 데 1~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금 후 거래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기여부를 알게 됐을 경우 반드시 그 즉시 무역관으로 연락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실시

다. 투자진출

□ 헝가리 투자환경

- 중동부 유럽의 지리적 요충지
 - 주변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2시간 내에 타 국가로 이동 가능. 특히 헝가리 분지 외 지역은 산지라 동-서를 잇는 전통적 길목 역할
 - 서유럽·발칸·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동유럽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장
-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
 -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국가로, 최근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인센티브 규정 변경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
 - 최근 헝가리 진출기업들의 임금지불 여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고용주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 도입 중

□ 헝가리 투자동향

- 서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지속 증가세
 - (전체 투자) 헝가리 전체 외국인 투자는 지난 5년간 22.5% 증가함
 - (EU 투자) 최근 유럽 경기호조세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헝가리에 대한 유럽 투자가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전체 평균보다 높은 33.5% 증가

[주요국별 對헝가리 투자액 누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럽	53,907	64,531	63,643	64,677	68,002	72,012
독일	19,371	19,500	19,071	18,720	17,157	18,719
네덜란드	12,056	9,728	8,981	12,104	21,455	23,397
룩셈부르크	4,240	10,725	10,159	9,882	-1,723	-2,078
오스트리아	7,861	9,118	8,631	8,445	12,775	13,640
영국	1,685	2,904	3,109	3,129	3,958	3,495
프랑스	2,997	3,283	2,518	2,358	9,10	2,484
벨기에	2,021	2,011	1,925	1,788	1,232	1,536
스위스	1,846	2,940	2,185	1491	207	25
미주	6,631	8,446	2,046	2069	-565	-705
미국	2,164	2,180	1,654	1563	1,111	1,021
캐나다	422	459	391	506	545	529
아시아	2,008	2,193	2,385	3,048	3,484	3,763
일본	869	773	815	1,159	762	842
한국	863	1,047	1,116	1,156	1,263	1,406
홍콩	330	292	322	409	410	412
싱가포르	333	406	357	410	398	417
중국	-25	65	80	184	210	235
인도	-13	-13	-9.2	138	89	28
아프리카	67	254	120	786	1066	1067
합계	66,009	78,892	78,869	81,941	77,677	76,223

자료원: 헝가리 국립은행(MNB)

□ 우리 기업 및 경쟁국 투자동향

- 對헝 투자의 89.0%가 유럽인 투자
 -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주변국의 투자액이 2016년 기준 720.1억 유로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89.0%를 차지
 - 비유럽 국가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한국은 2016년 비유럽 국가 중 3위 기록 후, 2018년 상반기 유럽 및 비유럽 국가 전체 對헝가리 투자 1위국 기록
- 헝가리 정부의 동방정책
 - 헝가리의 유럽 국가에 대한 외국인투자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나, 헝가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통한 의존도 완화를 취하겠다는 동방정책을 시행 중임
 -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동향은 아래와 같음
 - (중국) Huawei, Lenova 등 IT, 통신을 중심으로 생산거점 확보, 물류센터 신설을 통해 서유럽 판매망 확보에 주력
 - * 주요 진출기업: Huawei(IT.통신), ZTE, Wanhua(IT.통신), Lenovo(iT), 중국은행(금융)

- (일본) Suzuki 완성차 제조업,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유럽 생산거점 확보.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의 투자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주요 진출기업: Suzuki(완성차), Denso(부품), Musashi(부품), Bridgestone(타이어)

□ 최근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제조업 중심 투자진출
 - 2017년 9월 기준,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 수는 서비스업 포함 88개사이며,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제조법인을 중심으로 대중소 동반진출 사례가 다수임
-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이 새로운 활력
 - 삼성 SDI 및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로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했으며, 협력기업의 동반진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

□ 투자진출 진입장벽

- 헝가리 실업률 3%대 진입
 - 최근 헝가리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3.9%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7~8%대였던 것을 감안 단시간에 급속히 감소한 것임
 -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의 신규·증액 투자에 있어 가장 애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헝가리-독일 상공회의소에서는 젊고 기술력을 가진 인력의 해외유출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언급
- 헝가리 정부의 잦은 세제개편
 - 헝가리 정부가 최근 친외국기업적 정책을 계속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의 빠른 세제개편이 헝가리 투자의 불안요소의 하나로 꼽힘

투자진출 사례분석: 차량용 전자 클러치 생산 Y사(헝가리 자산인수형 M&A)

- (계획) Y사는 폴란드·프랑스에 납품처를 두고 전자 클러치에 대한 현지생산 공급체계를 계획함
- (M&A결정) 부다페스트 무역관 지사화 업체인 동 기업은 동유럽 생산현지화를 결정하고 투자 부지를 검토 중, 각종 인허가 취득단계 축소 및 초기설립 비용 감축을 위한 현지 자산매물에 대한 관심을 보임
- (M&A지원)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KOTRA M&A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현지 에이전트 고용 및 16건 매물검토를 통한 동 사의 자산인수 M&A를 지원했고, 본사를 통해 매물실사 및 취득비 지원 등을 시행함
- (신규납주처 발굴) Y사는 헝가리 현지에 빠른 입지 전략을 통해서 현지에서 새로운 납품처를 찾던 H사의 신규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 포인트: ①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출기업에 가장 알맞은 진출형태 선정에 기여, ② KOTRA M&A 지원센터를 통한 매물발굴, 계약, 실사 등에 대한 종합 지원, ③ 빠른 헝가리 입지선정 지원을 통해 Y사가 헝가리 현지 새로운 납주처 H사로의 신규납품 기회 발굴에 기여

라. 프로젝트

□ EU 기금

- 2014~2020 EU 기금 사업 활성화
 - 헝가리에 배정된 2014~2020년 EU 기금은 215억 유로이며, 헝가리 정부의 매칭예산은 38억 유로로 총 253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 프로젝트가 추진되거나 예정됐음. 헝가리에 배정된 EU 기금은 전체 3,493억 유로의 약 6.2% 수준으로 전체 EU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임
 - * 동유럽 배정규모: 폴란드(전체 EU 기금의 22%), 루마니아(6.5%), 체코(6.2%), 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순

□ 기타 프로젝트

- 러시아·중국 등 공동 프로젝트 발주
 - 중동부 유럽의 길목에 놓인 헝가리의 지정학적 위치 활용을 위한 러시아, 중국의 프로젝트 발주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러시아) 러시아는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완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헝가리를 지원하고 있음.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파이프, 지하철 프로젝트 등에 뛰어들어 헝가리 정부를 적극 지원 중임. 특히 형 오르반 총리와 러 푸틴 대통령은 매년 1~2회씩 정상급 회담을 가지고 있음
 - (중국)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중동부 유럽국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6+1' 그룹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헝가리-세르비아 구간 철도연결을 위한 비용의 70%를 중국이 부담하는 등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프로젝트 실패사례: 헝가리 스마트 대중교통 요금지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9,100만 유로)

- 참여기업: L사
- 프로젝트 내용: 부다페스트시 스마트 대중교통 요금지불 시스템(AFC) 구축
 - 2014년 8월 최종결과 발표, 경쟁사였던 S사가 수주
 - 약 2년간 한국 L사는 동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준비했으며 최종결정까지 경쟁
 - 자원: EBRD 5,450만 유로, 부다페스트시 1,700만 유로, 운영수익
- 추진경과
 - (2013년 상반기) L사는 당초 헝가리 미슈콜츠시 대중교통 AFC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참여 준비 중이었으나 부다페스트시의 AFC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찰 공고를 알고 참여 시작
 - (2013. 12) PQ(입찰사전심사) 통과
 - (2013. 12~2014. 6) 1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기술제안서 작성, 현지 로컬 파트너 발굴 및 Sub-contract 네트워크 구축
 - (2014. 8) 1차 제안서 통과 및 2차 제안요청서(RFP): 총 4개사 1차 제안서 통과
 - (2014. 8~9) 2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격입찰
 - (2014. 10) 최종결과 발표, 수주실패
 - 실패원인: 최종 수주자인 S사의 가격차가 약 2천만 유로
- 수주의의
 - 유럽 프로젝트 시장에서 최종 Bidding까지 경쟁,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 축적
 - 헝가리 교통 당국의 입찰평가에 참여했다는 레퍼런스 구축

마. 공공조달

□ 2014~2020 EU 기금 사업의 영향으로 헝가리 공공조달 프로젝트 확대

- 2014~2020 EU 기금 및 세체니 2020 계획에 따라 사회 각 분야 SOC 확충을 위한 공공조달 수요가 발생되며, 주요 타깃 분야는 철도·의료보건 분야

□ 주요 타깃분야

- (철도인프라) 시장규모 4.2억 유로, 2020년까지 지속 발주 예상
 - 전체 인프라 시장규모인 16.2억 유로의 44.9% 차지,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점 이점, 전체 철도의 40% 이상이 노후화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 계속될 전망
- (의료보건) 2020년까지 약 7.5억 유로 투입, 전체 EU 기금의 약 3% 차지
 - 주요 프로젝트: 부다페스트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1.1억 유로)
 - * 2020년까지 부다페스트 동서남북 지역에 4개 대형 슈퍼병원 건립
 - 주요 프로젝트: 헝가리 지방도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1.6억 유로)

[4개 주요 도시 병원 신축, 개보수 계획]



주: 4개 도시는 세게드, 페치, 커포슈바르, 니레지하저임

자료원: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한국 기업 진출 유망 공공조달 프로젝트]

국가	분야	유망사유(시장동향 등)	조달기관/ 납품 벤더	URL	조달 세부품목
헝가리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는 부다페스트시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Healthy Budapest Program (EBP)'을 계획 중임 • 30억 유로 전액 헝 국고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슈퍼 병원 3개, 위성병원 21개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 이에 따라 의료장비 공공조달 입찰 예정 	AEEK (헝가리 보건진흥원)	www.aEEK.hu	의료장비
헝가리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 정부는 주요 지방도시 병원 현대화를 위해 1.6억 유로 EU 기금(헝 정부 매칭비율 23.4%)을 결성 • 주요 4개 지방도시(세게드, 페치, 커포슈바르, 니레지하저)에 병원 현대화 및 신축건립을 진행할 예정임 	지방도시	-	의료장비

자료원: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가. 교역

□ 중동부 유럽 주요 협력국

- 2017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9.7억 달러(수출 12.06억 달러, 수입 7.06억 달러)로 헝가리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중동부 유럽의 3대 주력 수출시장
 - * 교역규모(억 달러): 16(2012년) → 26(2013년) → 20(2014년) → 16(2015년) → 16(2016년) → 19.7(2017년)
- 헝가리 진출 한국 대기업의 부품 소싱으로 對헝가리 교역은 매년 높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협력기업의 헝가리 투자진출, 글로벌 소싱 체계개편으로 무역수지 일부 감소세
 - * 무역수지(억 달러): 7(2012년) → 16(2013년) → 10(2014년) → 3(2015년) → 3(2016년) → 5(2017년)

[한·헝가리 연도별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수출	금액	1,890	1,513	1,704	2,385	1,476	1,157	2,114	1,481	1,016	953	1,206	503
	증가율	57.4	△19.9	12.7	40.0	△38.1	△21.6	82.6	△29.9	△36.8	△6.3	26.5	3.4
수입	금액	258	361	304	401	471	475	467	515	735	651	706	211
	증가율	12.8	40.3	△15.8	31.7	17.5	0.8	△1.7	10.3	12.3	△11.5	8.4	△9.7
무역수지		1,632	1,151	1,400	1,985	1,005	683	1,647	966	281	302	500	29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2018년 4월 기준)

- 주요 수출품: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컴퓨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원동기 및 펌프, 기타직물 등
- 주요 수입품: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자동차부품, 계측제어분석기, 가구부품, 컴퓨터, 육류, 농약 및 의약품, 기계부품 등

[한·헝가리 품목별 교역현황(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농약 및 의약품	210	55.3	원동기 및 펌프	131	△9.3
2	컴퓨터	112	2393.9	자동차	109	△16.5
3	자동차	111	22.2	자동차 부품	58	△1.5
4	자동차부품	83	21.2	계측제어분석기	46	22.0
5	합성수지	67	△8.5	기구부품	19	△33.6
	총계	953	△6.2	총계	651	△11.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 한국의 헝가리 투자동향

- 2017년 누계 기준(신고) 우리 기업의 헝가리 투자는 약 5.9억 달러이며, 투자분야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 순으로 구성
 - 2018년 10월 기준 제조업 중심으로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 수는 114개

[한·헝가리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분		'07	'08	'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對헝 투자	금액	19.4	2.6	36.8	14.1	1.3	0.4	37.8	8.9	0.2	39.4	13.4	592.4
	건수	23	10	12	11	4	3	8	11	4	9	23	239
對韓 투자	금액	1.5	5.7	24.1	29.4	24.6	-	-	-	-	-	-	201
	건수	2	3	4	9	6	-	-	-	-	-	-	31

주: 한국 통계자료와 헝가리 통계자료 상이. 통계해석 시 유의. 2007년 이전 투자액 합산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對헝 진출이 활발하며, 생산법인 형태로 진출한 기업 중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순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각 협력기업 진출도 다수
 - 2016년 8월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그린필드 투자 및 VC 기업들의 잇단 진출 수요로 對헝 투자 건수는 당분간 지속 확대 전망
 - 제조업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의 65%, KDB유럽 등 금융업이 25% 차지
 - * 삼성전자(1998년), 한국타이어(2006년) 투자 이후 각각 2차·3차 공장증설을 단행하였고,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헝가리 공장을 제조혁신 및 생산성 R&D 거점으로 지정
 - 2018년 3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기공식 개최. 2022년까지 건설비, 운전자본 등 투자 예정

[헝가리 우리기업 진출 지도]



자료원: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 헝가리 투자진출을 위한 경쟁력 비교자료

지표(순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한국	발표기관	발표년도
Ease of Doing Business Rank	48	27	30	39	45	4	World Bank	2017
Starting a Business	79	120	81	83	64	9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90	41	127	91	150	28		
Getting Electricity	110	54	15	57	147	2		
Registering Property	29	38	32	7	45	39		
Getting Credit	29	29	42	55	20	55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08	51	62	89	57	20		
Paying Taxes	93	51	53	49	42	24		
Trading across Borders	1	1	1	1	1	33		
Enforcing Contracts	13	55	91	84	17	1		
Resolving Insolvency	62	22	25	42	51	5	WEF	2017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60	39	31	59	68	26	TI	2017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66	36	42	54	59	51	IMD	2017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52	38	28	51	50	29	World Bank	2013
Time spent dealing with the requirements of government regulations (% of senior management time)	11.3	19.7	13.9	8.2	15.8	None	World Bank	2017
Total tax rate (% of commercial profits)	46.5	40.5	50.0	51.6	38.4	33.1	World Bank	2017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days)	7	37	9	13	12	4	World Bank	2017

자료원: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WEF), Transparency International(TI)(2018년 10월 기준 최신)

□ 한국 기업의 투자 성공·실패 사례

구분	내용	시사점
삼성전자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헝가리 경제개방과 동시에 영국 완야드에 소재했던 중대형 컬러TV 생산시설 이전 • 2007년, 2014년 2·3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으며, 삼성전기, 삼성케미칼, 삼성SDS 등 계열사들의 헝가리 진출을 이끌기도 함 • 헝가리의 저렴한 인건비 대비 우수한 노동인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유럽시장 공략을 진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제조시설 설치·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유럽 내 입지 강화 • 헝가리인들이 꼽는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 10위 안에 들며 헝가리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현대일렉트릭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중전기 강국인 헝가리에 중전기 R&D 센터를 운영 중임 • 독일 지멘스, ABB 등에서 퇴직한 헝가리 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R&D 성과를 창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의 우수한 기초과학 및 엔지니어 인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음

자료원: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다. 주요 협력의제

□ 한-헝 외교관계 현황

- 1988년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협정으로 동유럽 최초로 한국과 수교, 정치·경제 협력관계 구축
 - 한국 정상 헝가리 방문 2회(1989년 노태우 대통령, 2001년 김대중 대통령)
 - 헝가리 정상 한국 방문 7회(1989년 줄리호른 총리, 1990·1993년 아르파드 대통령, 2009년 라즐로 대통령, 2012년 팔슈미트 대통령, 2014년 빅토르 총리, 2015년 야노쉬 대통령)
- 한국-헝가리 체결 주요 협정
 - (1988년 8월)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 동유럽 최초
 - (1988년 12월) 투자보장 협정
 - (1989년 2월)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 2004년 EU 가입에 따라 종료
 - (1989년 2월) 문화 협정, (1989년 3월) 과학기술협력 협정
 - (1995년 3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 - 2005년 EU 가입에 대한 신규협정 체결
 -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2019년 2월 예정

□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

- 2014년 제1차 경제공동위
 - 중소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 인력양성, 기술혁신 협력, ECA 간 업무약정
 - 한국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 한-헝 방위 산업분야 협력 등 논의
- 2016년 제2차 경제공동위
 - 헬기 수출, 헝가리 건설 프로젝트 진출,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방안 등 검토
 -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협력, 방위산업 및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p>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EU 가입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 도입,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 동유럽, 발칸, CIS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주변 동유럽국에 대한 영향력 • 비세그라드(V4) 간 경제협력 강화, 공통의 목소리 • 우수한 인적자원(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 2위) 	<p>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968만 소규모 시장,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 • 유럽 평균 이하 소득, 가격에 매우 민감한 소비심리 • 투자·수출 모두 서유럽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자체적인 중장기 성장동력 부족 • 부실한 국가 재정, 잦은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p>기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임금 인상, 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 기대 • 3대 국제신용평가사, 헝가리 신뢰등급 상향조정 • 교통인프라 확충 기대 • 헝 정부의 서유럽 경제의존도 완화 노력, 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조(동방정책) •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회복, 유로화/포린트화 약세기조 계속 	<p>위협(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정책변화 및 세계개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로서 불안요소 • 난민문제 등 EU와의 잦은 정책 갈등 • 현지 인력부족 문제 심화 • 러시아, 중국 중심의 양자 프로젝트 선호도 및 헝 정부의 투명성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테스트베드로 활용, 동유럽 주변국 시장 확대 • 경기회복세 뚜렷, 가계소득 증가로 경기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 시장 집중공략, 주변 동유럽 시장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V4 등으로 권역 내 교역·진출 활성화 수요 기대 • 헝 총선 후 정책, 규제 변화 움직임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를 플랫폼으로 활용, 유럽 투자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강화 수요를 주목, 적극 대응 •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수주 참여기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로서 프로젝트 협력수요 발굴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소득증가 등 갑작스런 시장변화에 따른 기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추진

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가. (수출) 신시장 기회 적극 발굴

- 유로존 경기회복, 환율 약세에 힘입어 경기호황, 헝 소비패턴 빠르게 재편 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최근 경제성장, 실질임금 상승으로 더 나은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 가속화
 - *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 2018년 3월 기준 실업률 3.9%까지 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 영향
- 헝가리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켓 등 시장질서 재편
- EU 시장 단일화, 소비자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헝가리 디스트리뷰터 취급제품 포트폴리오 확충 진행 중
 - * 작은 시장규모상 디스트리뷰터는 한정, 취급품목 다변화 및 우수제품 취급에 관심 증가
- V4 일원이자 중동부 유럽 중심국가, 주변 동유럽·발칸·CIS 지역에 대한 영향력 상당
 - * 인구 968만의 소규모 시장이지만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 시장 확장가능성 다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헝가리 시장 분위기 '긍정적', 5년 연속 2~3%대 경제성장률, 서유럽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현지 임금 가파른 성장으로 헝가리 국민들의 소비여건 향상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2019년 물가상승률 3%대 진입 예상, '새로운 제품', '더 나은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아직까지 유럽 평균보다 낮은 한국산·비유럽산 제품 진출
-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 이색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 증가로 시장질서 새롭게 재편, 현지에서 팔리는 품목 다변화
 - 전통적인 헝가리인들은 제품을 직접 보고 비교하고 구매하는 등 제품 구매에 매우 신중하고 꺼리는 편, 카드사용 증가와 온라인 마켓 증가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질 전망
- 주변 동유럽·발칸보다 나은 소비환경, 상당수 주변국 인구가 헝가리를 방문 관광·쇼핑, 헝가리 레퍼런스가 헝가리 동남부 인근국가에서 유효
 - 헝가리 관광산업 호황 계속, 루마니아·세르비아·크로아티아 등 주변국 헝가리 디아스포라 상당수 거주

□ 진출전략(소비재): 기능성, 이색적인 맛과 향, 디자인 등 경쟁요소 필수

- (현황)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산 저가 제품에 오랜 기간 노출, 제품 가격 대비 성능에 매우 민감한 소비 특성
- (진출방향)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이 첨가된 제품이나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헝가리 진출 노력 필요. 식품 종류의 경우, 새로운 맛과 향을 매우 반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인에게 낯설지만 호감을 주는 제품 런칭
- (진출전략)
 - ① (시장반응) 샘플링을 통한 제품 호감도 조사, 현지인을 활용한 온라인·SNS 제품 리뷰를 활용하여 현지시장 연착륙을 위한 마케팅 전략 필요
 - ② (파트너 발굴) 소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이 큰 현지 파트너 발굴은 필수. 디스트리뷰터들끼리 정보가 활발히 돌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조건 제시 등 신뢰관계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③ (마케팅)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헝가리 디스트리뷰터 역시 리스크를 안고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은 수량(MOQ)에도 적극 대응하고, 샘플링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후방지원 필요

- (유망품목) 화장품·식품·의료기기 등 유망

[주요 유망품목]

품목	세부내용
① 화장품	지난 5년간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 최근 기능성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 성공사례 발생 중
② 차(茶)	지난 5년간 시장규모 13.2% 상승, 전통적으로 잘 팔리던 홍차보다는 과실·허브차, 녹차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③ 음료	지난 5년간 시장규모 44.1% 상승(주스 52.5%, 탄산 18.3% 상승), '건강·저설탕·새로운 향'에 대한 선호도 높음 * 헝가리는 2012년부터 비만세 도입, 100mm당 8g이상 설탕 함유 시 비례세 부과
④ 식품	부다페스트 무역관 주관 한국식품 시식회(2016. 12) 결과, 헝가리 식품바이어 상당수가 매운 맛, 한국 전통적인 향과 맛에 호감을 표했음.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았음
⑤ 의료기기	2016~2018년 헝가리 치과산업에 대한 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헝가리 디스트리뷰터·치과 Key Doctor들은 한국산 제품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매우 높게 평가함. 특히 덴탈체어, 초음파기기, 기계 요법치르기, 임플란트, 외과용캐터트 등이 기능성과 가격 면에서 유망품목으로 조사됨

□ 진출전략(산업재): 정부 시장정책 방향과 상당히 연계, 정부정책 주목

- (현황) 산업재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에 호응하여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헝가리 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에 주목하여 시장반응을 모니터링할 필요
- (정부정책): 각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정부단위에서 계획

[헝가리 산업별 정부정책]

품목	세부내용
① 건설	주택 신규건축·개보수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정책(CSOK)을 활발히 추진 중. 2016년부터 신규 건설주택에 대한 세금을 5%로 인하(2019년 말 종료 예정)
② 농업	헝가리 정부는 중단되었던 농업용 트랙터의 헝가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17년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헝가리 농기계산업협회는 트랙터 등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관련산업의 현지 진출 및 중간재 수입 등에 관심 증대
③ 에너지	전체 에너지 믹스 중 태양광은 0.1%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발전 차액제를 통한 차액보상제도,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건물에 설치 시 저금리 대출 및 20년 구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활성화 지원
④ 의료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다페스트 슈퍼병원 개설 및 주요 지방도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EU 기금을 마중물 삼아 진행 중임. 이에 따라 병원 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 증가

- (진출전략)
 - ① (모니터링) 헝가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산업 확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헝 정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기회 발굴 필요

② (네트워크) 산업 확장에 따른 시장기회 선점을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 관련 협회 및 산업별 클러스터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인 제품 수요 파악 필요

③ (마케팅) 산업재에 대한 현지 마케팅 및 신뢰할 만한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는 KOTRA를 통해 해외시장조사, 지사화, 사절단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장기회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유망품목)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농업·에너지·의료 관련 품목 및 EU 기금 사업과 연계된 품목

[헝가리 주요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명	주요 내용
자동차	North Hungarian Automotive Cluster	- 소재기업: 77개사 - 대표기업: Robert Bosch, Modine - 주요 특징: 헝가리 북부 자동차 산업 리딩 클러스터 - 고용인원: 1.2만 명 - 연매출: 1.4억 유로 - 연수출: 1.1억 유로
기계	Bakony-Balaton Mechatronics and Automotive Industry Cluster	- 소재기업: 39개사 - 대표기업: Continental Automative, Le Bélier - 주요 특징: 기계·자동차 산업 중심의 R&D 클러스터
의약품	Pharmapolis	- 소재기업: 24개사 - 대표기업: Richter, MEDISO - 주요 활동: 수출 중심의 의약품 클러스터
	Albert Szent-Györgyi Life Sciences Cluster	- 소재기업: 17개사 - 대표기업: Richter - 주요 활동: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R&D 클러스터
ICT	Innoskart ICT Cluster	- 소재기업: 63개사 - 대표기업: Ivanics, Magyarmet - 주요 활동: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력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Mobility and Multimedia Cluster	- 소재기업: 26개사 - 대표기업: Videoton Holding, Goodwill Pharma - 주요 활동: 이동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중동부 유럽 중심 클러스터
에너지	EcoPolis Cluster	- 소재기업: 40개사 - 대표기업: MOL, Graboplast - 주요 활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주력

자료원: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

[헝가리 주요 협회]

구분	협회명	웹사이트
건설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ior Designers	http://lakberendezok.hu/
	Hungarian Association of Building Engineers	http://www.megsz.hu/megsz/
	Building Science Association	https://eptud.org/
	Hungarian Tunnelling Association	http://www.ita-hun.hu
	Hungarian Ceramic Alliance	http://www.keramiaszovetseg.hu/
	Hungarian Brick Association	www.teglasszovetseg.hu
	Hungarian Roof Merchants Association	http://tetokereskedok.hu
	Hungarian Steel Association	http://www.magesz.hu
	National Carpenter and Woodworking Industry Association	http://www.oafsz.hu/contact
	Hungarian Lightweight Construction Association	http://konnyuszerk.hu/
	Aluminum Window and Facade Association	http://www.aluta.hu/
농업	Hungarian Grain Processors, Forage Manufacturers and Merchants Association	http://www.gabonaszovetseg.hu/
	Hungari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http://hucpa.hu/
에너지	Gas Industrials National Association	http://www.goe.org.hu/
	Hungarian Geothermal Association	www.mgte.hu
	Hungarian Solar Panel Solar Collector Association	http://www.mnnsz.hu/
의료	Hungari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Wholesalers	https://www.php-gynsz.hu/
	Association of Dental Merchants and Manufacturers	http://fokesz.hu/
자동차	Hungarian Medical Devices and Diagnostic Distributo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http://momdif.hu
	Hungarian Automitove Industry Association	http://gepjarmuipar.hu/mage-tagvallalatoknak/
	Association of Hungarian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http://www.majosz.hu/3/
	Hungarian Association of Automotive Dealers	http://www.gemosz.hu

자료원: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

□ 성공사례

수출 성공사례: 소비재(화장품)

- (현황) 헝가리 현지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우수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성공사례)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현지 유력 온·오프라인 디스트리뷰터를 발굴, 국내 및 유럽 현지 KOTRA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기업과의 만남을 지원, 2016년 해외수출이 전무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 2개사의 2017년 헝가리 수출 지원
- (유의사항) 유럽 내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책임회사 지정 및 CPNP 등록이 필요하며, 현지에서 이를 지원해줄 파트너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수출 성공사례: 산업재(태양광패널)

- (현황) 헝가리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특히 헝가리에서 비율이 저조한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중
- (성공사례)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2015년부터 꾸준히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심을 가진 현지 디스트리뷰터 발굴 및 GGHK 등 국내 상담회에 구매단으로 파견해왔음. 이에 연결된 한국 태양광 패널 2개사에서 각각 6만 달러, 1만 달러의 패널이 헝가리로 소싱되었으며, 헝가리 정부의 지방도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납품됨
- (유의사항)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유럽 반덤핑 제재조치가 매년 연장 중이나, 제재해제 시에 중국산 제품의 시장경쟁이 예상됨

나. (투자) 동유럽의 공장 헝가리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

-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에 따라 대중소 동반진출, 원가절감을 위한 현지소싱 수요 증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동반성장) 한국 투자진출 기업의 신규·증액 투자 결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증가
 - *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 신규 투자, 한국타이어·롯데첨단복합소재·한은시스템즈 증액 투자 등
- (현지화) 현지 제조시설 설립을 통한 현지 생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기업 소싱수요 대응
 - * 다임러·아우디 등 현지 증액투자 결정, 원가절감을 위해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 소싱 관심
- (M&A) 동유럽 자산(공장) 인수형 M&A를 통한 현지 생산인증 취득 및 건축기간 단축으로 경쟁력 확보
 -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지원 성약사례: 2017년 2건(Y사, S사) - 현지 공장인수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수출형 경제구조임
 - 1989년 경제개방 당시 민간에 축적된 자본이 없어, 저렴한 인건비 대비 우수한 기술력 및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서유럽 등 외국인 자본에 의존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왔음
 - 자동차, 전기전자, 제약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해왔음. 특히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 계속 성장
- 한국이 2018년 상반기에 총 3억 510만 유로로 對헝가리 투자 1위국 차지(형 국립은행)
 - 한국의 對헝가리 투자는 2016년 미국·일본과 더불어 비유럽권 국가 중 헝가리 투자 Big 3를 기록하다가, 2018년 상반기에는 對헝가리 투자 1위국으로 등극
 - 대표 진출기업인 삼성전자, 한국타이어는 각각 세 차례 제조시설 증액투자를 단행했으며, 이에 따른 대중소 동반진출 수요가 많았음

-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시설 건축을 위한 신규 투자를 했으며, 롯데첨단 복합소재, 한온시스템즈 등이 증액 투자를 추진 중
- 글로벌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납품처 발굴의 기회로
 - 최근 다임러 벤츠, 아우디 등 헝가리에 생산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 역시 헝가리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증액투자를 진행 중이며, 신규 생산모델에 차용될 차량용 부품 소싱처 다변화에 관심이 많음
 -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가절감(Cost Down)이 주목적이며, 이에 따라 인근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서의 소싱에 적극 관심이 많은 분위기임. 이는 동유럽 진출 생산기업의 공통적인 분위기로 보임

□ 진출전략

- 대중소 동반진출을 활용, 투자진출 리스크 완화
 - 헝가리 및 인근 동유럽 국가 발주처에서 현지 신규 공급처를 찾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포착되나, 투자진출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 대기업의 수요를 앵커삼아 진출 리스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
 - 다임러 벤츠, 포드, 일렉트로룩스 등에서 신규 납품처 발굴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헝가리 투자진출 유망분야는 자동차·전기전자 등 분야임

[헝가리 투자 유망 분야]

유망분야	현황 및 기회 요인
자동차부품	• 헝가리 내 완성차 메이커(벤츠, 아우디, 스텔라, 오펠) 및 인근국 우리 진출기업(현대차, 기아차)에 납품 기회
의료·계약	• 저임금의 고급인력 활용 가능, 100년 이상 제약산업 역사 등 • 셸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현지 Egis를 통해 유럽·CIS 등 성공적 진출
전기전자/ IT	• 전기전자 생산은 헝가리 제조업 총생산의 22% 차지(삼성, GE, SIEMENS, IBM 기 진출)
R&D 센터	• 의약, ICT, 기계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 R&D 센터 운영 중 • 우리 기업의 순수 R&D 센터 진출은 현대중공업이 유일

- KOTRA 자산인수형 M&A 사업을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 최근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현지 자산(공장) 인수형 M&A 2건 성약
 - 『M&A 의향 발굴 → 매물 검토 → 매물 실사지원(M&A지원센터) → 계약검토 → 비용 지원』 쉐단계를 지원했으며, 2개 성약기업에서는 헝가리 납품처 확보 및 현지 생산라인 완비를 위한 시간 단축, 현지 인허가 간소화 등에 성공
 - ISO·TS 등 현지 안전기준 등을 갖춘 매물 인수로 인증취득 등을 위한 시간·비용 감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 헝가리 투자청, Korean Desk 적극 활용
 -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헝가리투자청(HIPA)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17년 7월 투자청 내 Korean Business Desk를 지정
 -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를 위한 각종 인콰이어리 해소, 투자 인센티브 협상 등이나 기 투자진출 기업의 경우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어려움을 투자청 내 창구를 활용하여 적극 의견 개진 가능

3. 한-헝가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프로젝트) 동유럽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적기

●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로 사회 전반에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발주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기금)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 본격 발주, ICT·의료·교통·에너지 등 프로젝트 발주
 - * 전체 EU 기금의 6.1%가 헝가리 배정, 경제개발(30.8%)·지역개발(13.6%)·교통(13.3%)·환경에너지(12.9%) 순 배정
- (에너지) EU 2020 목표 달성을 위해, 헝가리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
 - * 신재생에너지원 비율 14.65% 달성목표, 0.1% 수준의 태양광 정책적 지원 집중
- (한국기업)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계속,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
 - * 삼성SDI,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우리 대기업들의 동유럽 건축 프로젝트 수요 계속 발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4~2020 EU 기금 프로젝트
 - 헝가리로 배정된 2014~2020 EU 기금은 215억 유로로 전체 EU 기금의 6.1% 수준이며, 헝가리 정부의 매칭예산을 포함하여 총 253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
 - 헝가리 EU 기금은 경제개발(30.8%), 지역개발(13.6%), 교통(13.3%), 환경·에너지(12.9%) 등 사회 곳곳에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 EU 기금을 활용한 헝가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세체니 2020' 계획으로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Operational Program, OP)을 보유

[2014~2020년 OP별 배정예산]

(단위: 백만 유로, %)

분류	총예산	EU 기금	헝가리 국고	EU 기금 배정비율
환경·에너지	3,784	3,216	568	14.9
경제개발	8,813	7,733	1,080	35.9
인력개발	3,069	2,615	454	12.1
교통개발	3,919	3,331	588	15.5
공공행정	935	794	141	3.7
지역개발	3,970	3,389	581	15.7
경쟁력개선	927	463	464	2.2
총합	25,417	21,541	3,876	100.0

-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 Europe 2020 목표 달성을 위해 헝가리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4.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수력원이 없는 헝가리에서는 풍력·태양광 등의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임
 - 태양광의 경우, 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주변국보다 매우 낮은 0.1%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헝가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중
 - 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발전차액제도, ②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0.5~1.0MW)에 대한 은행 최저금리 대출, ③ 형 전력사를 통해 최대 20년까지 고정금액에 전력 구입계약 등의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 중
- 우리 기업들의 동유럽 투자진출 계속
 -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동유럽 투자진출 계속. 『삼성SDI-헝가리, LG화학-폴란드, SK이노베이션-헝가리』를 비롯, 한국타이어 증액(헝가리), 넥센타이어(체코) 등 대기업 투자가 계속됨
 - 이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설계·엔지니어링·감리·배전·라인설치 등), 시스템 구축(보안, ICT, 자동화 등)에 대한 발주,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현지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레퍼런스 확보 노력 필요

□ 진출전략

- 동유럽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성
 - 한국 건설·엔지니어링 등 민간 개발사 및 공공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 정보 수집, 교류를 통해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수주 유망분야 선정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 지속 업데이트

[수주 유망 중점 추진 분야]

유망분야	현황 및 기회 요인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020 지침에 따라 환경관련 투자 본격화 - 플랜트 설치, 기술·솔루션 제공형태로 참여 가능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20년 EU 기금 전체 배정액의 15.5%를 차지하는 분야 • 장기적으로 헝가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 도로건설·보수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 정보시스템(교통카드 시스템)·도로안전시설물, 지하철 사업 등 유망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 개혁은 2016년 헝가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분야 • 슈퍼병원, 지방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등으로 의료기기 교체 수요 기대

- 헝가리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헝가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적시

- 헝가리 정부조달 참여 디스트리뷰터들에 따르면, 시장진입 초기단계에서 가격적 메리트를 제공하여 제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후,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언급. 또한 유럽 내 물류센터 활용하거나 헝가리의 낮은 최소주문수량(MOQ)에도 적극 대응 필요
- 한국 진출기업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활용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중동·중국 등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 현지 레퍼런스,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가장 큰 걸림돌임
 - 우리 진출기업은 제조시설 건립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적극 진출노력이 필요

나. (R&D) 형 R&D 역량 및 동유럽 네트워크 활용, 새로운 성장가능성 발굴

- 헝가리의 우수한 기술력, R&D역량, 마케팅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의료) 저비용 고급 연구진을 활용, 논문 및 임상 등 유럽산 레퍼런스 확보
 - * 헝가리는 전통적인 유럽 내 의료분야 강국, 임상의 경우 한국보다 약 1/6 비용에 추진 가능
- (R&D) 엔지니어링·ICT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기초·응용분야 모두 고부가가치 창출
 - * 글로벌 기업 상당수 헝가리 우수인력 활용 R&D 센터 운영, 동유럽 ICT 스타트업 강국
- (JV) 형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변 동유럽, 발칸, CIS 판매 네트워크 확보 가능
 - * 성공사례: 셀트리온 헬스케어, 형 Egis를 통한 현지 인증 및 마케팅 채널 확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형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공동연구 계속
 - 헝가리의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 활용을 위해, 한-형간 공공·민간 분야의 공동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헝가리의 우수한 역량을 민간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공공부문 - R&D 협력

- 2009년 이후 '한-헝가리 공동연구실 사업' 진행 중(4개 프로젝트)
 - 2009년 12월: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실 개소 합의
 - 4개의 한국-헝가리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민간부문 - R&D 협력

- LG화학, 헝가리와 2개 협력 프로젝트 진행
 - 헝가리과학원 및 부다페스트공대와 협조, 배터리 소재 특허출원
 - 3D head display 기술 상용화 추진(2014년 1차 연구, 이후 3개년 과제 진행)
- 한국 중소기업 2개사, 한-유럽 공동연구를 위한 치과 분야 신기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

- 헝가리 의료분야 역량 활용을 통한 유럽산 레퍼런스 확보
 - 헝가리 의대·치대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노벨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R&D 비용이 저렴한 편임
 - 임상실험 역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편이고, 저렴한 것이 장점임. 실제 임상을 추진한 한국기업에 따르면 국내의 약 1/6 비용임
 - 헝가리 공동협력을 통한 한국 신기술에 대한 유럽산 논문 레퍼런스 및 임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 엔지니어링·ICT에서도 높은 창의적 역량 보유
 - 헝가리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다수 노벨상을 받은 기초과학 강국이며, 전통적인 증전기기에 강한 면모를 보임. 특히, 독일 등 글로벌 기업의 퇴직인력 등 관련 분야 시니어급 전문인력 활용 기회 상존
 - Prezi, LogMeIn, Ustream 등 글로벌 스타트업의 고향이며, 우수한 ICT 인력 확보가 가능한 동유럽 스타트업 수도
- 동-서유럽·발칸·CIS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마케팅 네트워크
 -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헝가리 Egis와의 협력을 통해, 까다로운 유럽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현지인증 취득
 - Egis의 기존 구축된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 동서 유럽, 발칸반도, CIS 지역으로 판매를 늘려가고 있으며, 2015년 헝가리는 한국 제약수출 3위 대상국으로 성장
 - * 한국의 對헝가리 제약수출 규모(백만 유로): (2014년) 7.3 → (2015년) 171.9 → (2016년) 133.3 → (2017년 9월) 123.9

□ 진출전략

- 헝가리의 우수인력 및 기존 연구성과 전략적 홍보
 - 우리나라 기업 산하 사설 R&D 센터 대상, 헝가리가 가진 저비용 고급 R&D 인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 활용의 장점 및 성과 홍보
 - * 중소기업 활용 사례: 치과용 재료 제조 벤처기업 M사 사례

- 2014년 3월 치과재료용 신소재의 임상연구를 헝가리 대학으로 의뢰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는 1억 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 헝가리의 R&D 인력을 활용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지원
-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헝가리 과학기술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 가능 연구진 확보
 - 기술개발협력 상담회를 통해 상호간 협력방안 모색

[과학기술 협력유망 분야]

유망 분야	현황 및 기회요인
공학 전반	부다페스트공대 연구소 등 유수의 연구진과 R&D 가능성
의료·바이오	세멜바이즈 의대, 세계드 의대 등 명문 의대를 활용한 임상사례 발굴 가능
기계·전기전자	서유럽 글로벌 기업(Siemens, Bosch 등) 퇴직인력 및 엔지니어들을 활용한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 기술 상용화 R&D 추진사례 확대 발굴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매칭 후 현지 R&D 투자진출 시 법인설립 지원까지 지원
- 최근 헝가리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R&D 투자 시 인센티브 지원범위가 넓어지는바, 헝가리투자청(HIPA 등)과 긴밀한 공동 지원 및 투자진출 단계별 지원
- 헝가리의 지역적 이점과 판촉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중동부 유럽 권역 내 헝가리 기업들이 발굴한 판매망을 적극 활용, 우수한 국내 신제품에 대한 주변국 수출의 장으로 활용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0%
초음파기기	수입액('16/US\$백만)	81.4	대한수입액('16/US\$백만)	8.4
	선정사유	한국에서의 수입이 최근 2년간 165.5% 증가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규모 18.7% 증가		
	경쟁동향	독일(2016년 시장 점유율 32.3%), 네덜란드(15.7%), 슬로바키아(14.4%), 중국(13.9%), 한국(10.4%) 순		
	진출방안	IT 결합형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체험기회 제공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2	HS Code	901910	수입관세율(%)	0.0%
기계요법치료기	수입액('16/US\$백만)	105.9	대한수입액('16/US\$백만)	1.0
	선정사유	한국에서의 수입이 최근 2년간 17.0% 증가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규모 14.5% 증가		
	경쟁동향	중국(2016년 시장점유율 38.4%), 독일(17.5%), 네덜란드(8.5%), 폴란드(6.8%) 순. 한국은 0.9%		
	진출방안	중국산 제품과 차별점을 중심으로 기술 및 내구성 홍보 필요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3	HS Code	300610	수입관세율(%)	0.0%
외과용캐터트	수입액('16/US\$백만)	63.5	대한수입액('16/US\$백만)	1.3
	선정사유	한국에서의 수입이 최근 2년간 6,550% 증가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규모 29.8% 증가		
	경쟁동향	벨기에(2016년 시장점유율 50.9%), 스페인(20.6%), 영국(5.9%), 중국(5.6%) 순. 한국은 2.1%		
	진출방안	시장을 선점 중인 벨기에, 스페인 제품과의 차별성 중심 마케팅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4	HS Code	902121	수입관세율(%)	0.0%
임플란트	수입액('16/US\$백만)	7.6	대한수입액('16/US\$백만)	0.6
	선정사유	한국에서의 수입이 최근 2년간 182.6% 증가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규모 25.4% 감소		
	경쟁동향	이스라엘(2016년 시장점유율 49.8%), 독일(19.9%), 한국(8.5%) 순임		
	진출방안	시장을 선점 중인 이스라엘, 독일 제품과 차별성 중심 마케팅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5	HS Code	940210	수입관세율(%)	0.0%
덴탈체어	수입액('16/US\$백만)	5.0	대한수입액('16/US\$백만)	-
	선정사유	헝가리 치과협회에서 한국산 덴탈체어를 보고 추천		
	시장동향	최근 2년간 수입규모 0.2% 감소		
	경쟁동향	독일(2016년 시장점유율 46.1%), 미국(20.6%), 중국(11.2%), 터키(7.7%), 슬로바키아(5.4%) 순임		
	진출방안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헝가리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홍보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6	HS Code	8541	수입관세율(%)	-
태양광패널	수입액('15/US\$백만)	820	대한수입액('15/US\$백만)	8.5
	선정사유	EU 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상 수요 증대 전망		
	시장동향	202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수요증대 전망		
	경쟁동향	독일 및 아시아(일본, 중국) 제품 인지도 높음		
	진출방안	소량주문 거래 및 물류방안 마련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9	HS Code	851610	수입관세율(%)	0.0%
히팅필름	수입액('16/US\$백만)	33.6	대한수입액('16/US\$백만)	0.2
	선정사유	헝가리 민간투자 활성화로 신규건축 활성화		
	시장동향	건설자재 꾸준히 성장세		
	경쟁동향	히팅필름은 중국, 루마니아가 시장 선점		
	진출방안	중국산 대비 품질경쟁력 마케팅 필요		
	유망국가	헝가리		
품목명 8	HS Code	8433	수입관세율(%)	-
농업기기	수입액('16/US\$백만)	196.6	대한수입액('16/US\$백만)	-
	선정사유	헝 정부 국영농지 민영화로 수요증대 전망		
	시장동향	수요 증대 및 농업 현대화 작업 확대		
	경쟁동향	역내 제품이 시장 선점		
	진출방안	독일, 이탈리아산 대비 가격 마케팅		
	유망국가	헝가리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관광산업	선정사유	헝가리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산업으로 지정하고, EU 기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적 투자 단행 중
	시장동향	헝가리 관광산업은 2017년 GDP의 약 2.4%를 차지, 2018년에는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경쟁동향	헝가리 내국 관광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스트리아·영국 등 서유럽 국가에서 각종 헝가리 관광상품 운영 중
	진출방안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차량, 투어, 가이드 등). 특히 헝가리 지방도시 프로그램과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공유센터 (SCC)	선정사유	헝 정부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로 많은 헝가리인이 다수 외국어 구사(헝가리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할수록 자기가치가 높아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음)
	시장동향	British Tobacco, Nuskin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UN 기구에서 헝가리로 서비스공유센터(SCC)를 이전 중
	경쟁동향	다수 글로벌 기업이 헝가리로 SCC 이전, 최근 헝 실업률이 3%대로 진입한 만큼 인력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
	진출방안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서비스센터 및 유럽 지역 관리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 플랫폼 구축

□ 동유럽 의료·보건 분야 패키지 사업(연중)

- 추진방향: 조사-마케팅 연계, R+R(Research + Reflection)형 사업
 - ① (조사) 동유럽 의료·보건 분야 진출전략 상시 모니터링(연중)
 - 주요 내용: 동유럽 의료기기 조달, 프로젝트 시장 동향 모니터링 조사
 - ② (국내상담회) 동유럽 의료기기·프로젝트 구매단 파견(상반기)
 - 주요 내용: GBMP 등 본사개최 상담회에 현지 주요 발주처 및 디스트리뷰터 방한 설명회·상담회 개최
 - 참여무역관: 동유럽 무역관 8개 무역관(V4+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 ③ (사절단) 동유럽 현지 의료기기 사절단 사업(하반기)
 - 추진방향: 상반기 국내상담회에서 발굴된 유망사례 및 협력수요 현지 초청
 - 주요 내용: 현지 프로젝트 조달 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참여무역관: 유망 프로젝트 및 의료분야 유망 전시회 개최 무역관
 - * 헝가리·폴란드·불가리아·세르비아 의료기기 전시회, 2018년 10월 집중

□ 헝가리 투자진출 지원 사업(연중)

- 추진방향: 對형 수출의 70% 이상이 진출기업으로 수입 증으로 對형 투자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① 대중소 동반 진출 지원
 - 주요 내용: 삼성SDI, 한국타이어 등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 수요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현지진출 설명회 개최 및 인콰이어리 해결
 - ② 자산인수형 M&A 지원
 - 주요 내용: 헝가리 투자진출 인허가 간소화 및 공사기일 단축 등을 위해 헝가리 현지 자산(공장) 인수 지원
 - 지원내용: 매물 발굴, 매물 실사 및 계약서 발굴, M&A 추진비용 지원 등
 - 협력: 본사 MnA 지원팀

③ 동유럽 진출기업 납품처 다변화 지원 상담회

- 주요 내용: 헝가리 등 동유럽 진출기업 중 납품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 현지 발주처와의 핀포인트 상담지원
- 참여무역관: 동유럽 무역관 8개 무역관(V4+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세르비아)

□ 헝가리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추진방향: 헝가리 태양광 산업 경기호조 예상, 한국산 태양광 패널의 헝가리 공공 프로젝트 참여 지원

① 국내 구매단 파견

- 주요 내용: 헝가리 공공 태양광 프로젝트 참여 디스트리뷰터 대상, 구매조달 희망 프로젝트 및 용량(MW) 확인, 한국기업 대상으로 보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상담 개최
- 대상사업: GGHK, 대구 Green Expo 등 국내 관련 상담회·전시회

② 인콰이어리 발굴

- 주요 내용: 헝가리 공공조달 디스트리뷰터들로부터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한 인콰이어리 발굴, 국내기업에 전달하여 참여 기회 확대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헝가리 수교 30주년	2019. 2	
EU 의회 의원 선거	2019. 5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헝가리 2020년 예산심의	2019. 6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농기계) AGROmash 전시회	2019. 1. 23~26	
(건축) Construma 전시회	2019. 4. 3~7	
(산업일반) Industrial Days 전시회	2018. 5. 14~17	
(치과) Dental World 전시회	2019. 10	
(자동차) Automotive Hungary 전시회	2019. 10	

담당자

부다페스트무역관 이세연
Tel +36-1-799-5402

직책 과장
Email seyeonlee@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헝가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